

무속신화「지장본풀이」의 祭儀的 기능과 意義

李 秀 子*

목 차

- | | |
|-----------------------|--------------------------|
| I. 머리말 | |
| II. 지장본풀이의 성격 | III. 지장본풀이의 제의적 기능 |
| A. 지장본풀이의 내용 | IV. 지장본풀이의 문화사적, 문학사적 의의 |
| B. 서사구조상의 특징 | A. 지장본풀이의 문화사적 의의 |
| C. 기능적측면에서 본 지장여신의 성격 | B. 지장본풀이의 문학사적 의의 |
| D. 형식상의 특징 | V. 맺음말 |

I. 머리말

지장본풀이는 지장이라고 하는 여신의 근본내력담을 설명하는 무속신화다. 제주도의 큰굿 및 작은굿에서는 현재에도 이 신화가 자주 구송되고 있는데, 「제주도 무속자료사전」에 의거하면¹⁾, 큰굿의 21. 양궁속임제차에서는 이 본풀이가 단독으로 불리우고 있고, 16. 시왕맞이제차에서는 강림차사본풀이와 소만이 본풀이가 구연된 후 불리워진다. 작은굿으로는 거무영청 대전상이란 굿에서 이것이 불리우는데, 이 굿은 백정의 집안에서 그 生業의 변창을 빌 때 행하는 것이라 한다. 여기에서는 지장여신이 백정들의 수호조상신으로 되어 있다²⁾.

지장본풀이라는 신화는 지장이란 여신이 가진 신화적 성격 및 제의적 기능을 볼 때 상당히 눈여겨 볼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 이화여대 국문과

¹⁾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서울, 신구문화사)
이하 이책의 이름은 「사전」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²⁾ 현용준(1980), 위의 책 p.467 주1) 참조
지장본은 ‘도살아지장본’으로도 말하는데, 이때의 도살은 屠殺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장은 도살의 기능과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구하고 이 신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편적인 연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것은 이 신화를 포함하고 있는 제주도 무속의 실상 및 위상이 현금까지 잘 파악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큰굿은 그 안에 천지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는 신화, 인간출생에 관한 신화, 농경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 등 중요한 신화들을 내포하고 있고, 이 신화의 대상신들이 가진 신적기능은 인간의 삶자체와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새삼 인식된다. 따라서 제주도 무속은 새로운 연구를 통해 그 의의나 위상이 다시 밝혀져야 될 것이다. 제주도 무속의 전체적 위상이 파악된 다음에 개별적인 내용을 고찰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먼저 개별적인 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성과들이 종합될 때, 제주도 무속의 위상은 보다 확연히 제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제주도 무속신화 중의 하나인 「지장본풀이」를 선택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부를 마련하는데 있다.

지장본풀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시될 수 있는 신화다. 따라서 먼저 이 신화의 성격을 살펴 보고, 이어서는 이 신화의 제의적 기능을 고찰한 후, 이 신화가 갖는 문화사적·문학사적 의의를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지장본풀이는 이미 자료가 많이 채록·보고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들자료를 중심으로 하면서, 내용의 소개를 겸하여 이 신화의 전체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적어 보고, 성격과 기능 및 의의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II. 지장본풀이의 성격

현재까지 채록·보고된 지장본풀이 자료는 「제주도 무당굿놀이」에 1편³⁾, 「남국의 무가」에 2편⁴⁾, 그리고 「사전」에 1편이 있다. 그러므로 각편은 전부 내개가 되는 셈이다. 자료의 성격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³⁾ 김영돈, 현용준 조사(1965),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자료 「제주도 무당굿놀이」

⁴⁾ 진성기(1968), 「남국의 무가」(제주, 제주 민속문화연구소)

	수록책명 및 자료명	구연자	채록지	조사자
①	제주도 무당굿놀이 pp. 61~70	김만보 男 1965년현재 36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합덕리	김영돈 현용준
②	남국의 무가	7.지장본 pp.195~6.	서월선女.76세 (1968년기준) 김녕리	진성기
③		7.지장본 pp.197~9	박남하. 男57세 〃	
④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지장본풀이 pp.288~295	안사인 外 3人 김만보	제주시용담동 및 조천면 합덕리 현용준

자료 ①과 ④는 같은 조사자에 의해 채록된 것이다. 구연자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①은 김만보가 구연한 것이다. ④는 안사인이 구송하고 김만보가 실었다고 하는 만큼⁵⁾, 이것은 안사인 구연본으로 볼 수 있겠다. 두 자료는 서사진행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므로 이 둘을 비교하면 빠진 부분을 서로 보충해 줄 수 있고, 의미가 안 통하는 부분도 상호해명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자료②③은 내용이 많이 생략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나 서사적진행은 자료①④와 거의 같다. 자료③이 서귀포를 중심으로 하는 남제주지방에서 채록되었고, 그 나머지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북제주의 것이라는 점에서, 두지역간의 변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특별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네 자료 중 ①④만을 중심으로 하여도, 신화의 성격을 고찰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④를 중심으로 하면서 ①을 보조적 자료로 삼아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A. 지장본풀이의 내용

지장본풀이는 지장이라는 여신의 일생을 그린 일종의 구비서사시다.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새(鳥)로 환생하는 지장여신의 일생담을, 서사진행에 맞추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i는 신화적 전제사실, e는 설명 부분임)

i) 지장의 난산국·본산국을 풀겠다고 말한다.

⁵⁾ 「사전」, p. 314

1. 천하거부인 남산과 여산 부부는 마흔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
 2. 절(또는 당)에다 시주하고 원불수륙을 드린다.
 3. 부부는 시주한 물건이 백근이 못차 딸을 접지받으며, 천상배필을 맺은 후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이름을 지장아기로 짓는다.
 4. 한살때 어머니 무릎에서 어리광 부린다.
 5. 두살때는 아버지 무릎에서 어리광 부린다.
 6. 세살때는 할망·하르방 무릎에서 어리광을 부린다.
 7. 네살때는 할망과 하르방이 오독독 죽는다.
 8. 다섯살 때는 아버지가 죽는다.
 9. 여섯살 나는 해는 어머님이 죽는다.
- e₁ 지장은 이년의 팔자여, 이년의 사주여 어디로 가겠느냐 하고 한탄한다.
10. 외삼촌집으로 가 살게 되나 박대받으며 고생한다.
 11. 하늘새로부터 옷과 밥을 얻는 등의 보호를 받는다.
 12. 나이 열다섯에 이웃으로 시집간다.
 13. 결혼하는 날부터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생남자를 보았다'는 것은 아들을 낳았다는 뜻으로 본다).
 14. 시아버지로부터 재산 모두를 물려 받는다.
 15. 열여섯살에 시할망·시하르방이 오독독 죽는다.
 16. 열일곱살에는 시아버지도 오독독 죽는다.
 17. 열여덟 나는 해에는 시어머니도 죽는다.
 18. 열아홉 나는 해에는 드디어 낭군이 죽는다. 그리고 아울러 생남자(아들)도 죽는다.
- e₂ 지장은 나년의 팔자여, 나년의 사주여 어딜로 가리야 하고 한탄한다.
19. 지장이 시누이방으로 들어가니, 시누이가 욕하며 죽일 말과 잡을 말을 했다.
 20. 지장아기는 집을 나온다.
 21. 빨래하다가 대사를 만나, 자기의 사주팔자를 묻는다. 대사는 초분은 좋고, 중분은 나쁘며, 말분은 좋다고 하면서 서럽게 간양가부모를 위해 전세남굿을 하라고 일러준다.
 22. 지장아기는 전세남굿을 위해 험난한 고초를 겪으며 굿거리를 장만한다.

221. 굴미굴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 상마루를 올리고 집을 짓는다.
 222. 서천서역국에 가서⁶⁾ 뽕나무씨를 타다가 심고, 나무를 키운다.
 223. 서천서역국에 가서 누에씨를 타다가 누에를 깨워 뽕잎을 먹
 이고 누에잠을 재운다.
 224. 누에고치의 실을 풀어 전새남굿에 쓸 비단을 짠다. (초감재 및
 초공, 이공, 삼공, 시왕, 뽕감 등의 신맛이 다리用 비단과 무기구에 매달
 끈 등)
 225. 이어서 호름쭈치와⁷⁾ 아강베포와⁸⁾ 극보(급부)야잘리(자루) 등을
 짠다.
 226. 대공단고칼로 머리를 깎고, 송낙을 쓰고 장삼을 입은 후, 손에는
 목덕(목탁)을 들고, 호름쭈치와 아강베포 그리고 극보야잘리를
 두르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며 齋를 올릴 곡물을 모은다.
 227. 동네의 친척과 함께 얻어온 곡물로 굿에 쓸 도래떡과 송편을
 만든다.
23. 신의 형방(십방, 무당)을 불러 양가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전새남굿을 벌인다.

⁶⁾ 구체적인 공간명이 자료 ④ 에는 빠져있는데 ① 에는 나와있다.

⁷⁾ 호름쭈치 : 「사전」 p. 227 에는 종이 재미를 얻으러 다닐때 쌀을 넣어지게
 된 주머니 비슷한 것인 듯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는 이것을 물을 넣어
 갖고 다닐 호리병박을 넣고 다니는 주머니로 보고자한다. 호로는 호리병
 박이라는 뜻이 있고, 쭈치는 주머니의 경상도 방언으로 남아있다. 그러므로
 호름쭈치는 호로의 쭈치라는 뜻으로 호리병박을 넣고 다니는 주머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게된다. 종이 재미쌀을 모으러 다닐때 예전에는 물담을
 그릇으로 호리병박을 사용하지 않았나하며, 이것은 그흔적이 아닌가한다.

⁸⁾ 아강베포 : 「사전」 p. 227 주321. 에는 종이 재미를 얻으러 다닐때 지는
 뽕잎인듯 하다고 설명되어 있다. 본고는 이것을 ‘입이 있는자루’로 보고자
 한다. ‘아강이’는 아가리의 방언이다. 베포를 삼베자루로 볼 때, 이것은
 입이 있는 마포자루가 된다. 종이 시주를 받을때 처음에는 이런 자루에
 쌀을 받고 이것을 다시 급부야 잘리 (등에 메고 다니는 긴 자루?)에 넣은
 것이 아닌가한다. 종이 시주를 받을때 입이 있는 자루를 사용했던 흔적은
 제석본풀이, 초공본풀이에 남아있다. 즉 남주인공 주자선생이 당금애기를
 만나 시주받을때 그는 자루의 한쪽은 입에 물고, 한쪽 손은 자루의 나머
 지쪽을 잡았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손으로는 당금애기의 상가마를 세번
 쓰다듬어 잉태를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신화형성당시, 중들이 입이
 있는 자루를 갖고 다니며 시주를 받았던 증거가 된다.

24. 이후 지장은 좋은일을 하면서 살다가 죽는다.⁹⁾

25. 죽은 후에는 새몸(鳥)으로 환생한다.

i₂ 이어서 새를 쫓는 내용과¹⁰⁾액을 막아달라는 비념이 나온다.

B. 서사구조상의 특징

지장본풀이의 내용은 지장아기의 1)출생담과 2)성장담, 그리고 3) 결혼에 이어 4)전세남굿을 마련한다는 공업담과 5) 사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는 이들을 부분별로 나누어 성격을 고찰해 보고 이러한 서사적 구조가 어떤 유형적특징을 드러내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출생담

지장아기는 천하거부인 남산과 여산을 부모로하고 이세상에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났다. 부부는 사십이 되도록 무자하였으므로, 동개남은중절 서개남금백당 남개남노강절 북하산농궁절이 수덕과영검이 좋다는 말을 듣고 가사와 송낙지를 배 구만장과 백미 일천석을 시주하고, 그곳에서 원불수룩을 드린다. 상탕으로는 메를 짓고 중탕에는 목욕하고, 하탕에서는 수족을 씻으며 백일간 수룩을 드렸는데, 시주한 물건이 백근이 못되었기 때문에 딸을 접지받게 된다.¹¹⁾ 그리하여 합궁

⁹⁾ 이것은 자료 ④에 따른것이다. 자료 ①에는 지장이 부채를 무울고 서천 서역국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리하지 못했다. 신화의 성격상 자료 ①의 것이 보다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 된다.

¹⁰⁾ 이것은 원래 邪을쫓는 내용인데, 새쫓는 것으로 내용이 전이되어 여기에 와서 부연된 것이다. 앞에서 '새'가 되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새'라는 공통화소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농경의 기원을 알려주는 세경본풀이에는 이 세상에 邪가 마련된 유래가 설명되어 있다. 邪는 농경신이 되는 자청비의 남편 문도령과 약혼했던 서수왕딸애기가, 결혼이 파기되자 죽어서 그 원혼이 사가 되었다고 한다.

¹¹⁾ 제주도 큰곳에 나오는 무속신화에는 원불수룩(아이의 잉태를 기원하는 재의 이름)드리는 내용이 거의 다 나오는데, 이때 관용적으로 쓰이는 절의 이름이 동개남은중절, 서개남금백당, 남개남노강절, 북하산 농궁절이다. 또 여주인공이 출생할 때는 대부분 시주한 물건이 백근이 못된다하여 딸로 접지받아 출생하고 있다. 이로서 '백'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내지는 성수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일을 받고, 천상배필을 맺은 후 잉태하여 딸을 낳는다.

그 모습은 ‘물앞의 옥돌같고, 제비새알라우리 같으며 가마기짖날개에 앞니망엔 햇님 뒷니망은 달님’이었다. 한살·두살·세살에 이르기까지 그는 (조)부모들의 무릎에서 어리광을 부리며 자라난다. 이러한 그의 출생담은 바로 지장의 출생이 ‘고귀한 출생’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급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부친이 천하거부라는 사실은 이 집안이 부러울 것이나 모자람이 없는 풍족한 살림이라는 것을 뜻하므로 사회적신분도 대단하다는 것을 암암리에 시사하고 있다.

기장정성에 의한 출생 및 타고난 아름다운 모습등도 모두 신화적 주인공들이 갖는 고귀한 혈통 및 신분과 상관성이 있다. 그의 출생은 보통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출생담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이다.

2. 성장담

지장아기가 네 다섯살 경 되었을 때, 해마다 한 사람씩 보호자가 죽어간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마침내는 어머니까지 죽게 된다. 가족 모두가 구물함에 따라 그는 10살 이전에 천애고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의 성장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련치고는 가장 큰 것이다. 존재론적 측면에서 볼때, 고아라는 상황은 일종의 棄兒상태로서 외로움도 극에 이른 때다. 지장아기는 경제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가장 큰 고난에 빠지게 되었다. 외삼촌집에서의 생활은 가난과 궁핍, 그리고 박대의 계속이었다. 이곳에 있으면서 그는 개가 먹던 접시를 갖고 동네에 다니며 구걸하여 연명한다.¹²⁾ 하늘의 부영새가

¹²⁾ 본문인용 : 동네야 금방상 / 웨삼촌 데으로 / 시양을 가더고 / 가는날 부터 사 / 개먹단 접시에 / 술랍을 달랜다.
‘술랍을 달랜다’의 주석이 (「사전」 p. 290, 주349) 술밥의 음변, 술랍을 달랜다 함은 ‘숟가락으로 밥의 양을 계산하여 준다’는 뜻으로 되어 있으나 본고는 이것을 ‘동냥다니다’ 또는 ‘구걸다니다’ ‘시주다니다’의 뜻으로 보기로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료 ① (「제주도 무당굿놀이」, p. 64)에는 —(개먹단 접시에 / 쇠먹단 / 그릇에 술랍을 달랜다) 에서 술랍의 용례를 볼 수 있고, 또 지장이 나중에 재미쌀을 모으러 다닐 때에도 ‘술랍’의 용례가 나오는데, (본문인용) (p. 68).

지장의 아기씨 / 술납을 하시고
동으로 들어서 / 서으로 나시고

날개를 펼쳐서 덮어주는 등, 천우신조가 있어 지장아기는 삶의 어려움을 이겨 나간다. 이것은 그의 신성성과 신이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외삼촌가족으로부터 온갖 박대를 당했다는 내용이 직접 언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그가 외삼촌집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며 가난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신화적 주인공이 棄兒의 상태 후 겪는 온갖 시련과 일치한다. 원조자로서 하늘새가 등장하는 것은 그가 신이한 존재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3. 결혼담

지장아기는 고난과 박해속에서 성장하지만, 위낙에 아름답고 착하다는 소문이 자자하였기 때문에 열다섯 살 되었을 때 이웃의 구혼을 받고 시집간다. 곧 아들을 낳았으므로 시아버지는 온갖 재산을 다 물려준다. 이것은 이제 지장아기가 시집식구로부터 완전히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시집으로의 이입이 무사히 끝난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시하르방, 시할머니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해마다 연이어 죽고 드디어는 남편과 자식까지 죽게 된다. 시누이로부터 박대를 받고 집을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사정은 그가 다시 고통과 시련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지장아기의 결혼담이란 그가 겪은 성장기의 고난과 시련의 연장에 불과하다. 결혼으로 인하여 잠시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듯 했으나, 이것은 더 큰 시련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지나지 않았다. 존재론적으로 그는 다시 또 절대고립의 위치가 되고 마는 것이다.

4. 공업담

집을 나온 지장아기는 대사를 만나 자신의 운명에 대해 듣고, 자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을 위해 전세남굿을 벌이기로 한다. 대사는 여기에서 일종의 원조자적 성격을 갖고 있다. 지장아기는 굿을 벌이기 위해 서천서역국에 가서 뽕나무씨와 누에를 얻어 굿에 쓸 여러가지 기구들을 마련한다. 비단은 옷감 중 가장 좋은 것이다. 비단 云云을 통해서 그는

서으로 들어서 / 동으로 나는고...

여기에서 보면 술람의 뜻은 동서로 다니며 시주쌀을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떡던 집시에/술람을 달랜다]는 개떡던 집시를 가지고 동냥을 다니다의 뜻이 되는 것이다.

세운 공업내용의 질적수준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서천서역국은 특정한 문화공간으로 상정되어 있다. 이곳으로 갔다오는 과정은 직접 언술되어 있지 않으나, 이 속에는 그가 갖은 고통을 무릅쓰고 이곳으로 가서 뽕나무씨와 누에를 얻어 왔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그는 탐색을 계속하면서 필요한 것을 얻고, 고통을 참으며 굶을 할 차비를 마련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전새남굿을 벌여 죽은자들을 위해 저승길을 닦아 주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바로 지장아기의 공업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내용들은 모두 그의 공업담이 된다. 공업의 성격이 전새남굿을 마련하는 것으로 귀착된 것은,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무속신화이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죽은자들을 위한 내용을 신화속에 담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것이 살아 있는 것들을 죽이는 의식에서 불러졌기 때문이다.¹³⁾

5. 사후담

지장아기는 죽은자들을 위해 전새남굿을 벌여주고, 이후 죽어서 자신은 새몸(鳥)으로 환생한다. 제주도 큰굿의 시랑맞이를 보면 무속에서는 새로운 환생을 가장 좋은것으로 관념했던 흔적이 있다.¹⁴⁾ 지장아기가 다시 이세상에 새(鳥)로 환생하여 살았다는 것은 그의 사후담으로서 신성성을 더한다.

6. 종 합

이상의 내력담은 영웅의 일생이 가지는 서사적전통과 그 맥락이 닿아 있다. 부귀한 집안으로 대신된 고귀한 혈통성, 기자정성을 거친 출생담, 棄兒적 성격을 갖는 유아기의 부모구물, 그리고 고아로서 겪는 시련과 고통의 성장기와 그것의 연속적 성격을 갖는 결혼기, 이어서 나오는 공업담의 과정은 바로 신화적인물들이나 영웅들이 가지는 일생의 과정과 그 성격이 일치한다. 공업담의 내용이 전새남굿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주인공의 시련이 남을 죽음으로 유도한 것(殺)때문에 비롯된 것 및 이것이 무속신화라는 점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영웅들이

¹³⁾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장의 ‘지장본풀이의 제의적 기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¹⁴⁾ 여기에 대한것은 「사진」 p. 223참조
이러한 관념에 대한것은 다시 별고를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하겠다.

이루는 공업은 그가 온갖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지장이 전세남굿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이루어낸 것이므로 이것은 결국 의미가 같은 것이다. '새'로의 환생은 그의 死後담이다. 신화의 주인공들은 일반적으로 死後의 신성성이 강조되는데,¹⁵⁾ 새로운 환생은 이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지장본풀이의 서사구조는 전형적인 영웅담속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장본풀이가 보이는 영웅의 일대기적 서사유형은 곧 이 신화가 신화적전통의 시원적 원형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하며, 이것을 통해서서는 이 신화의 고풍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C. 기능적측면에서 본 지장여신의 성격

무속신화의 대상신들은 모두 나뉠대로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애초부터 인간이 이러한 기능을 중시하여 그것에 해당하는 신들을 설정하고, 그들을 제향했으며, 이러한 의식을 위해서 이른바 본풀이(신화)라는 것을 창조해 냈기 때문이다. 지장본풀이도 역시 이렇게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대상신이 되는 지장여신도 어떤 기능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본풀이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능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다.

지장의 일생 중에는 그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난다. 그가 출생한 이후 그의 하르방, 할망, 아방, 어명이 모두 연달아 죽어 나갔다. 그리고 시집간 이후에 아들을 낳고, 재산을 물려 받은 후에는 또 시집의 시하르방, 시할망, 시아방, 시어명,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해를 거듭하여 사망했다. 아들을 낳고 재산을 물려 받았다는 것은 그가 완전히 시집식구의 일원이 되었고, 시집식구들은 이제 그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시집간 후에 시집식구들이 죽어 나간 것은 결국 그녀가 그집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녀는 남을 죽게하는(殺) 팔자와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

¹⁵⁾ 동명왕과 관련된 구제궁의 기린궁 및 조천석에 얽힌 신화내용이나 박혁거세에 관한 오룡의 신화 내용들이 전부 주인공들의 사후의 신성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러므로 그녀가 고의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만 있으면 옆의 사람들은 저절로 죽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옆의 사람이라해도 그 殺의 운명은 가족에게만 미친다. 그녀가 외삼촌네 집에 가서 살았는데, 그집 식구가 죽어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외삼촌은 이미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가 외삼촌집에서 진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박대받으며 살았다는 것도 이러한 의식과 상관성을 가진다. 지장의 시집식구 중에는 시누이만 살아 남았는데 이 사실 역시 친가에서의 외삼촌관계와 마찬가지로, 시누이는 지장의 진정한 가족일 수 없다는 의식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시누이는 출가했거나 또는 나중에 출가하면 외인이 될 것이라는 무의식적 사고가 여기에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지장이란 여주인공은 그녀와 가장 친밀한 양가의 직계존속 및 비속을 모두 죽게 만듦으로써 두 가족집안의 가계를 몰락시켰다. 이들의 죽음을 표현할 때 하르방·할망의 죽음에는 서럽다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살만큼 살았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와 남편이 죽어갈 때는 서럽다고 표현했다.¹⁶⁾ 이것은 죽은자들의 죽음자체를 슬프게 생각하여 서럽다고 표현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들이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하르방과 할망의 죽음을 표현하는 수사법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보다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보건대, 지장의 양가 직계존비속의 죽음은 그들 자신이 타고난 운명 때문이 아니라, 지장이란 여주인공이 남을 죽이는 운명으로 예정되어 태어났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지장이란 여신은 손수 남을 殺人하지는 않지만, 필경에는 곁에 있는 가족을 죽게 만드는 이른바의 必死女인 것이다.¹⁷⁾ 지장아가기가 시누이방으로 들어 갔을 때 시누이가 했다는 말과 행동에도 이런 사고가 나타나 있다.

¹⁶⁾ 지장을 만난 대사는 그에게 서루신 부모와 서루신 시부모를 위해 전생남을 하라고 한다. (「무당굿놀이」 p. 66) 또 부모와 남편등이 죽을때도 설우신 어머니님, 설우신낭군님이 오독독 죽어간다고 하였다. (「사전」 p. 289. 290 291)

¹⁷⁾ 이 용어는 1988년 언제인가 모방송국의 ‘드라마게임’에 나왔던 용어이다. 여기에서는 ‘남편을 죽일 여자’라는 의미로 쓰였으나, 본고에서는 ‘기필코 상대방을 죽이는 여자’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지장의 아기씨/씨누이 방으로/ 혼지방 넘으난/

a) 씨누이 나홀년/죽일말 흥더고/

씨누이 방으로/두 지방 넘으난

b) 씨누이 나홀년/잠을 말 흥더고

씨누이 나시난/베룩이 닷돼여/너가 닷돼여.

a)와 b)는 시(조)부모와 남편, 그리고 아들이 죽고난 후에 지장아가기 시누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시누이가 한 말과 행동이다. 나 홀년을 시누이가 지장을 욕하는 것으로 본다면,¹⁸⁾ a) b)는 시누이가 지장을 욕하고 죽일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장을 가리켜 죽일년·잠을년이라고 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사람을, 내 가족을) 죽일년,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라버니(또는 남동생), 또는 제자식까지도] 잡아먹은 년이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본다. 오늘날 쓰고 있는 용어 중에도 남편을 죽였다던가 또는 남편을 잡아먹었다던가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원문의 뜻을 이상과 같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지장이란 여신은 가족을, 나아가서는 남편과 아이까지도 잡아 먹는 운명을 지닌 여자로 규정지워져 이세상에 태어난 비극적 존재이다. 여인의 일생이란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장본풀이는 비장미 넘치는 작품이고, 이런면에서는 아마도 이 신화를 능가할 작품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장본풀이는 무속신화이므로, 이런 측면만을 강조하여 이해할 수는 없다. 신화는 대상신의 기능이 중시되어야 하므로, 신화에 나타나는 이러한 의미는 대상신의 기능과 연결지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은 제의적 성격과 결부되어야 한다. 지장여신의 기능은 바로 친밀한 상대를 죽게하는(必死, 殺) 것이다. 그러므로 지장본풀이는 무엇

18) 「사전」 p. 291 주)366과 367에는 ‘나홀년’은 여자를 욕하는 말이라 하고 ‘나시난’은 낳았으니의 뜻으로 못돼먹었다는 뜻을 야유한 말이라 하였다. 그런데 본고는 이것과 입장을 약간 달리한다. 즉 ‘나시난’은 ①낮은(얼굴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②-(부정개념의 말)+따위, ~조차 등의 조사개념으로도 (현재 전라도 지방에 이런 용법으로 -나시난이 쓰인다고 한다)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①로 본다면 시누이 얼굴이, 닷되나되는 벼룩이나 이에 물린 것처럼 울그락불그락 화가 났다는 뜻이 된다. ②로 본다면 시누이는 닷되나 되는 벼룩이나 이처럼 성가시고 괴롭다는 뜻이 된다.

인가를 죽일 때 불러졌음을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런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지장본풀이는 죽임을 당하는 자와 죽이는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신화다. 이 둘은 대립이 아니라 일방적인 패배와 승리의 관계에 있다.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죽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둘은 서로 상극적인 운명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때 죽이는 자에게 어떤벌이나 육체적고통도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다만 자신의 공업을 통해 죽은자들을 위로하고, 자신은 새(鳥)로 다시 환생한다. 둘 사이의 상극적 운명이 전세남굿을 통해 해소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세남굿이라는 의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상극적관계에 있는 것들의 원이나 한을 풀어 주는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한다.

지장신은 殺生 또는 必死의 기능을 가진 여신으로 상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가진 대상신의 본풀이는, 이러한 기능과 상관성이 있는 의식에서 불러졌던 것임을 추정할 수 있겠다.

D. 형식상의 특징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신화는 큰곳에 나오는 다른 본풀이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다음에는 이러한 특징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지장본풀이는 상당히 단편의 신화다.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분량이 제일 짧다. 짧은 중에도 한 인물의 일대기가 전부 그려져 있으므로 그 내용은 긴밀성을 지닌다. 묘사나 설명 내용이 비교적 적고 서사진행의 언어단위가 많이 등장하므로, 이야기가 재빨리 진행되는 편이다. 지장본풀이의 음수율은 너무나도 규칙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3·3조의 음수율로 고정되어 있다. 3음절 2음보의 율격이 연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강한 리듬성을 느끼게한다. 이 현상은 다른 본풀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것으로, 지장본풀이만의 특징이다. 본풀이들은 모두 제의에서 구송되는 구비서사시다. 이들은 모두 음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율문적인 성격을 대부분 갖고 있다. 그런데 지장본풀이는 그 중에서도 이런 성격이 제일 강하다. 이 본풀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엇을 죽일 때 불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呪術性이 보다 강해야했을 것이다. 본풀이가 가지는 이상의 특징들은, 이 노래로 하여금 주술력을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 배려된 것이 아닌가 한다.

지장본풀이는 일정한 음수율을 갖고 있어 리듬성이 강하므로 노래 화되기 쉽다. 또한 길이가 짧다는 점도 이렇게 될 가능성을 크게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화가 제의에서부터 벗어나 일반에서 불린다면, 서사민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III. 지장본풀이의 제의적 기능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지장본풀이는 必死, 殺生의 기능을 가진 여신의 내력담을 읊은 무속신화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의 큰굿에서 구연되어 왔고, 지금도 구송되고 있다. 큰굿이란 일종의 제의인데, 제의란 인간의 삶과 상관성이 있는, 또는 의식상 필요한 기능을 가진 대상신을 설정하고, 그 대상신에 제향을 베풀면서 인간삶의 풍요와 행복과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유일신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그 대상신이 오직 하나일 수 있지만, 다신교적 바탕위에서는 그 대상신이 여럿일 수 있다. 제주도의 큰굿에는 많은 제차가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의 큰굿이 다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제의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제주도의 큰굿은 그러므로 대상신이 많았던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본풀이 즉 무속신화란 제의에서 제향되는 대상신의 내력담을 설명하는 것이다. 제의에서 대상신이 중시되는 것은 그가 가진 바의 기능 때문이므로, 본풀이속에는 반드시 이 신이 가진 기능이 설명되기 마련인데, 이것은 결국 인간이 제의를 행하는 목적과 일치된다. 우리가 본풀이에 나오는 대상신의 기능을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그 본풀이가 읊어졌던 의식 및 제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상의 사실에 연유한다. 지장여신의 기능은 무엇을 죽게 하거나 또는 어떤 존재의 죽음을 유도하는 것이었다(必死, 殺生). 이러한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면, 이 신화는 결국 무엇을 죽이는 의식과 상관성을 가지고 읊어졌던 신화였을 가능성이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제의에서는 반드시 제향되는 신들에게 바칠 제물이 필요하다. 살아 있는 존재가 그대로 제물이 될 수도 있지만, 살아 있는 존재를 그 자리에서 죽여 바칠 수도 있다. 이것은 흔히 희생제물이라고 말해지는데, 지장본풀이는, 대상신의 기능과 관련지어볼 때 이러한 희생제물을 죽일 때 불러졌던 신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장여신이 백정들의 수호조상신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도 이런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 충분한 근거이다.¹⁹⁾ 오늘날의 백정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도살행위를 직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득한 옛날에는 그들의 조상이 제의에 바쳐질 희생제물을 도살했었다고 본다. 지장여신이 백정들의 수호 조상신으로 되어 있고, 이 신화의 주인공이 殺生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적 관습이 오늘날에도 남아 지장여신이 백정들의 수호조상신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지장본풀이가 희생제물과 상관성이 있는 의식에서 불러졌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도 근거한다. ‘거무영청대전상’이라는 작은곳은 백정의 집안에서 그 생업의 번창을 빌때 하는 곳이다. 여기에서는 오늘날도, 소를 사다가 실제로 칼로 소를 잡고, 그것을 신에게 대접하는 연극적실연을 한다고 한다.²⁰⁾ ‘거무영청대전상’을 ‘신적존재를 신청(겻상, 또는 제사지내는 장소)에 맞이하고 베푸는 큰 상(죽, 제물상)’이란 뜻으로 보면,²¹⁾ 이것은 바로 희생제물을 바쳤던 제물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희생제물을 잡아 제물상을 마련했던 것이 백정들이었기에, 이러한 의식명이 오늘날 백정들의 생업 번창굿명으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지장본풀이가 이 곳에서 불러지고 있다는 점은, 이 신화가 희생제물의식과 상관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되는데 지장이라는 여신의 기능을 必死, 殺生과 관련지을 수 있음도 여기에서 재확인될 수 있다.

19) 「사전」 p. 467 참조.

20) 「사전」 p. 859 참조.

21) ‘거무’는 굼의 뜻으로 (大)神을 의미하며, ‘영청’은 제청 또는 신청으로 맞이한다는 뜻이고, ‘대전상’은 큰상 또는 크게 차린상이란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이명칭은 원래 ‘신들을 제청으로 맞이하곤 베푸는 큰상’이란 뜻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의 명칭이 의식명이 되어 ‘거무영청대전상’이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처럼 신을 위한 음식상은 곧 희생제물을 바치는 상이었다고 보이는 만큼, 이러한 의식명은 곧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과 상관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거무영청대전상’이란 원래 큰굿내에 있었던 것일 수 있다. 현금의 큰굿에서는 ‘양궁숙임’이란 제차에서 지장본풀이가 불리운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양궁숙임이란 제차는 원래 희생제물과 상관성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²²⁾ 큰굿내에 이 지장본풀이가 단독으로 불리우는 제차가 있다는 것은 원래 희생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큰굿내에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고, 거무영청대전상이란 굿의 실상이 원래의 이것과 상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큰굿의 시왕맞이 제차에서는 스만이 본풀이에 이어 지장본풀이가 구송되고 있는데, 지장본풀이가 여기에서 불리우는 것은 후대의 변용일 수 있다.²³⁾ 시왕맞이 제차는 죽음과 상관성이 있는 제차이다. 그러므로 큰굿이 가지는 의식으로서의 의의가 약화되고, 희생제물의 의의 또한 감소되면서 ‘죽음’이라는 공통의 화소 때문에 지장본풀이가 시왕맞이제차에 남아 있게 되었다고 본다. 지장본풀이가 큰굿내에 남아 있다는 사실자체도 아득한 옛날에는 지장본풀이가 큰굿이라는 의식내에서 불렸었다는 흔적이 될 수 있다. 큰굿내에 있던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은, 큰굿의 제의적성격이 약화되면서, 그리고 제물이 음식을 미리 장만하여 바치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그 의의나 규모가 약화되어 작은굿으로 따로 독립해 나갔고, 지장본풀이와 같은 것도 설자리를 잃어 시왕맞이제차속으로 수용되어 불리우게 되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잡았던 것이 바로 백정들이었기에, 거무영청대전상이란 의식명이 굿의 이름으로 전이되어 백정들의 도살업을 번창시키기 위한 것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의의 원천적 모습과 관련지어 보면, 도살이란 희생제물을 바치기

²²⁾ 양궁숙임이란 제차명이 보여주는 바 ‘~궁’이란 것도 화살과 관계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희생제물을 죽이던 의식과 상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다. 양궁숙임의 뜻은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해명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그럴때면 이 제차의 성격도 분명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²³⁾ 시왕맞이제차는 저승에 있는 시왕을 맞아 모시는 제차이다. 강남차사본풀이는 죽은 인간의 영혼을 데리고 저승으로 가는 차사의 본풀이이므로 이 제의적 성격과 맞는다. 스만이 본풀이는 정해진 수명을 늘여산 신적 존재에 대한 본풀이이므로 시왕맞이제차와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지장본풀이 역시 이 제차의 제의적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 또한 하나의 제차에 성격과 기능이 다른 세신의 본풀이가 있는 것도 이상하다. 그러므로 본고는 지장본풀이가 여기에서 구연되는 것을 후대의 변용으로 보았다.

위한 중요한 행사이며 의식이었다. 많은 민족에서 그들단체의 평안을 위해 신년 또는 특별한 기회에 제사를 지내는 경우 흔히 살아 있는 것들을 제물로 바치고, 그자리에서 그것을 죽인 후 함께 나누어 먹었던 관습이 있었음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²⁴⁾이 때의 희생제물 대상은 소나 말, 그리고 돼지 등의 큰짐승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도 되었다. 거무영청대전상굿을 보면 이것은 소로 되어 있다. 양궁속임제차에서는 이것이 닭으로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차이는 바로 의식내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제물을 미리 만들어 쟈상을 마련한다. 희생제물의 의의는 더욱 약화되어 앞으로 이런 의식은 점차 소멸되리라 본다. 제물내용의 변화는 무엇을 죽이던 ‘기능’은 그대로 전승되었으나 그 의미나 내용은 축소·약화된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제의에 있어 기능이란 것이 얼마나 강조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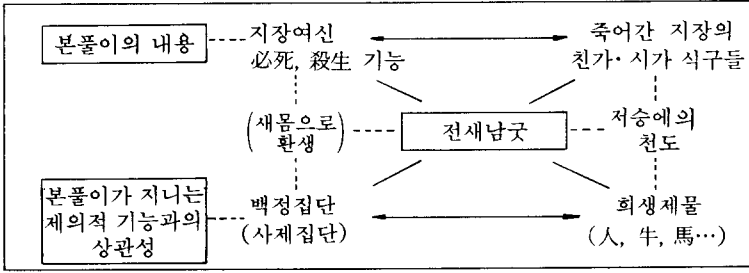
지장본풀이는 큰굿이라는 의식이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 희생제물을 바치는 의식속에서 불려졌던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장본풀이가 지니는 바 죽이는 자와 죽어가는 자와의 대립내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이해될 수 있다. 죽어가는 것으로 대표되는 것은 희생제물들이며, 죽이는 자는 곧 사제집단(백정집단)을 상징하여 이들의 대립관계를 비유적으로 허구화한 것이 바로 지장본풀이의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장본풀이는 이 둘의 관계를 어쩔 수 없는 운명론적 상황으로 돌렸다. 죽어가는 것들은 전세남굿에 의해 저승으로 잘 천도되고, 죽이는 자는 새의 몸으로 환생시킨다는 내용은 양편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화적의미는 후자를 보다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상의 관계를 도표로 요약해 보기로 한다. (도표 1)

이렇게 보면, 지장본풀이는 희생제물을 도살하는 의식하에 죽이는 자와 죽어가는 대상물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그들관계의 대립과 조화를 신화적세계로 허구화시켰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죽이는 자로서는 지장여신을 대표로 설정하면서 도살집단을 옹호하였다. 그리고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서는 영혼을 천도하고 위로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특히 이들 죽어가는 대상물(큰짐승 등)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을

²⁴⁾ J.프레이저, 「황금의 가지」, 김상일(역), (서울, 을유문화사), 1975, p. 381등 참조. 이외에도 이러한 관습에 대해서는 다른 책에도 많이 언급되어 있다.

기저로 하여 배려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²⁵⁾

(도표 1)



IV 지장본풀이의 문화사적, 문학사적 의의

A. 지장본풀이의 문화사적 의의

신화는 祭儀의 구술상관물로 나타난 것이기에, 제의의 存否와 수명을 같이 한다.²⁶⁾ 우리나라의 큰굿속에 있는 신화들은 큰굿이라는 제의와 함께 형성되고 발생한 것이므로, 큰굿이라는 제의가 행해지는한 신성성을 유지하며 신화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이들 신화는 신성성을 잃고, 한 편의 옛날이야기나 전설 등으로 몰락하게 된다. 무속신화들은 그러므로 신화로 존재하는 것도 있으나, 민담이나 전설 등으로 성격이 변하여 살아 있는 것도 많은 것이다.²⁷⁾

지장본풀이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의식에서 불러졌던 신화로 신성성을 가진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노래였다. 제주도에서는 아직도 큰굿 및 작은굿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본 신화가 구송되고

²⁵⁾ J. 프레이저, 위의 책 p. 284

여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원시인들은 모든 동물의 영혼은 존경하며, 특히 유용하고, 크고 사납고 강한힘을 갖고 있는 것은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다루었다하고, 따라서 이와같은 동물의 사냥이나 도살은 그렇지 않는것에 대한 것보다 더한층 정성들여진 규칙과 의식을 베풀었다고 한다.

²⁶⁾ 신화가 제의에서 발생되었다고 하는 학설은 오늘날 그 유효성이 어느정도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 학설을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²⁷⁾ Thomas A. Sebeok(1958), 'Myth a symposium' p. 122~135 Myth and Ritual이란 글에서 Lord Raglan은 W. J. Gruffydd의 학설을 빌어 신화는 나중에 전설이나 민담 또는 문학적인 이야기로 바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므로, 여기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신화로 존재한다. 본토의 큰굿은 원형으로부터 너무나 일탈하여 제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어, 희생의식의 유무 및 지장본풀이의 구송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본토에서 그 옛날 이 신화가 불렸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미 장르상의 변모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지장본풀이가 현재 제주도의 큰굿속에 살아 있다는 것은, 이신화가 제주도의 큰굿제의와 함께 발생되어 구송되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것은 곧, 이 신화가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큰굿의 형성과 그 시원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의 큰굿은 제주도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토의 큰굿과 뿌리를 같이 한다. 제주도의 초공본풀이가 본토의 제석본풀이 신화들과 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입증해 준다.²⁸⁾ 제주도의 큰굿이 본토의 그것과 뿌리를 같이한다는 점은, 지장본풀이가 본토의 큰굿형성과도 시원을 같이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며, 이렇게 본다면 지장본풀이는 본토에서도 불렸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지장본풀이는 본토에서도 불려졌었다고 본다. 그러한 증거는 여러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① 현재 이 신화와 똑같은 내용의 민담은 별로 구전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이 신화와 비슷한 내용의 巫歌가 경북지방에서 불리우고 있는 것은²⁹⁾ 아득한 옛날 이 신화가 본토의 큰굿에서도 불렸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② 우리나라의 불교(절)에는 (지장보살)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는 원래 지장여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신화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이 사실도 본토에서 지장본풀이가 불렸었던 흔적이 될 수 있다. 절에 무속적인 것들이 많이 잔존해 있다는

²⁸⁾ 서대석(1980), 「한국무가의 연구」(서울, 문학사상사)
제석본풀이계 무속신화는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인데, 제주도의 초공본풀이도 이것과 내용이 같은 것이다. 초공본풀이는 무조신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신화인데, 초공본풀이가 본토의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제석본풀이와 같은 맥락의 신화라 한다면, 제주도의 큰굿이야말로 본토의 그것과 뿌리를 같이하는 것이다.

²⁹⁾ 최정여, 서대석(1974), 「동해안무가」(대구, 형설출판사) pp. 401~6. 과부타령의 대체적인 줄거리는 ①한살에 모친잃고 ②다섯살에 부친잃어 ③고모, 이모, …등 친척의 집에서 구박받으며 살다가 ④열다섯에 시집가니 ⑤일곱달만에 남편이 죽어 ⑥시집식구의 구박을 받다가 ⑦집을 나와 중이 된다는 것이다.

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산신각. 명부전. 칠성각 등) 그런데, [지장보살]과 관련된 여러 속성에는 지장본풀이의 내용 및 무속적인 것과 일치하는 특징이 있다. [지장보살]은 저승의 十王과 함께 명부전에 모셔져 있고, [지장기도]는 특히 내세복락을 위한 재(齋)와 상관성을 갖고 있다.³⁰⁾ 신화에 나오는 지장여신은 죽음(必死, 殺)과 관계있는 여신이며, 죽은자를 위해 전세남굿을 벌여 저승길을 닦아주고 자신은 새(鳥)로 환생했다. 제주도의 큰굿 중 시왕맞이제차와 관련된 해심곡의 내용을 보면, 저승에 있는 왕은 열다섯왕이 있는데 그 중 열한번째왕이 지장대왕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의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내용이 소멸되어 없어졌기 때문이다.³¹⁾ 신화에 나오는 바 지장여신의 必死 및 저승에의 영혼천도, 그리고 저승의 열한번째 왕으로 원래 지장대왕이 있었기에 [지장보살]이란 존재가 절에 있어서 명부전에 모셔진 것이며, 또 신화에 나오는 바 저승으로의 영혼천도 및 지장여신의 새로의 환생과 관련하여 [지장기도]가 내세복락과 연관성을 가지게 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장여신과 [지장보살]의 상관성이 분명히 파악될 수 있으며, [지장보살]이란 이름은 지장여신에서 근거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지장보살 發心因緣十王經]이 본경이 아니라 위경에 속한다는 연구업적도³²⁾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신화적사실과 결부된 신적존재의 이름이 지장보살로 전이된 것일 수 있으며, 이와같은 추론이 가능하다면 본토에서도 지장본풀이가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지장본풀이의 서사구조와 일치하는 시집살이민요가 본토에서 흔히 구전된다는 것도, 앞서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신화가 있었기에, 시집살이 민요같은 것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④ 희생제물을 드리는 의식이 본토에 있었다는 사실은 하회별신가면극에 남아 있는 내용으로도 증명될 수 있다. 여

³⁰⁾ 유동식(1975),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 262. p. 265 참조

³¹⁾ 지장본풀이 신화와 관련지어 지장대왕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저승의 지장대왕은 억울하게 죽은 자의 영혼을 구제하거나, 또는 그 영혼을 저승으로 잘 천도해 주는 일을 담당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³²⁾ 佐和 隆研編, 「佛像圖典」(일본, 吉川弘文館) p. 166

기에서는 백정이 나와 소의 불알을 팔고 있는 것이 있는데,³³⁾ 제주도의 거무영청대전상굿놀이에도 백정이 나와 소의 불알을 떼어 파는 내용이 있다.³⁴⁾ 가면극의 발생이 무당굿놀이와 상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회별신굿의 내용은 본토에서도 희생제물의식이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이며, 여기에서 지장본풀이가 불렸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아득한 옛날 본토에서도 지장본풀이가 신화로서 존재했었을 것이라는 점이고, 이것은 큰굿제의와 함께 그 신화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을 것이라는 점이다.³⁵⁾ 그리하여 지장본풀이의 내용은 이야기로 혹은 노래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었을 것으로 본다. 태어나면서부터 친정(조)부모가 연이어 몰살하고, 그래서 여자의 친가가 몰락하며, (외)삼촌집에서 고생스럽게 살다가 열다섯에 시집가니, 또 계속적으로 시집식구가 몰살하는 한 여자의 비극적운명을 그린 이야기는 독특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쉽게 기억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이야기들은 代를 통하여 회자될 수 있었고, 이러한 동안 이런 유형의 여자가 實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형성시키게 되었다. 신화가 문화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상황에서 비롯된다.³⁶⁾ 신적인 여자의 비극적

³³⁾ 유한상, 하회별신가면극대사 「국어국문학 20호」
중요 무형문화재 「탈춤대사집」(1981)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p. 247

³⁴⁾ 「사전」 p. 467~473 참조.

³⁵⁾ 큰굿은 그 시원이 아주 오래일 것으로 본다. 지장본풀이에 나오는 바 '중이된다'는 것과 '대사'云云의 내용 때문에, 지장본풀이 및 큰굿의 형성이 佛敎(석가모니교)전래 이후에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이나 대사 등의 말은 불교이전부터 쓰였던 우리말일 수 있다.

김석하(1973), 「한국문학의 낙원사상연구」(서울, 단국대출판부) p. 37여
기에서는 무격적 지도자의 고유명칭이 중이었고, 이것이 나중에 승려의 명칭이 되었다 했다.

유동식(1975), 위의 책 p. 89 참조.

³⁶⁾ 왕빈(1980), 「신화학입문」(서울, 금란출판사) p. 30

말리노프스키의 기능주의는 신화를 사회내에 살아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기능의 구조로 이해하는 것인데, 그는 신화가 현실을 정당화하고, 전통을 강화하며 살아서 작용하는 <현장>으로서 기능한다하고, 그러기에 신화는 사회집단의 모든 문화사상의 현장이며 또한 도덕률을 옹호하고 관습, 사회제도, 제의의 정당성을 보증한다고도 하였으며, 신화는 결국 중요한 문화력이 된다 하였다.

일생담은, 곧 실제로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여자가 있다는 민속 사고를 형성·고착시키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현실화시키게 된 것이다.

지장본풀이의 신화내용으로부터 형성되었고, 또 파생되어졌다고 보이는 민속신앙적인 면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집안을 중심으로 본다면, 어떤 딸아이가 태어나면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된다는 사상을 배태시킬 수 있다. 지장의 친가는 이 딸이 태어나 네살되었을 때부터 식구가 죽기 시작하여 드디어는 한 집안이 몰락하고 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다. 집안과 연대가 맞지 않는, 또는 집안을 가난하게 만드는 딸이 태어날 수 있다는 사상이 여기에 기인하여 생성될 수 있다. 오늘날도 잔존하는 것으로, 집안과 연대가 맞지 않는 자식,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이 잘못 되었다던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러한 사상의 형성은 앞서의 사실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시집쪽을 중심으로 본다면, 며느리를 잘못 맞으면 집안이 망할 수 있다는 사상이 나올 수가 있다. 지장의 시가는 지장이 시집으로 이입된 후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시집쪽에서 보면, 며느리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며느리를 잘 맞아들여야 한다는 사고가 배태될 수 있다. 며느리의 시집으로의 이입은 시집가계의 번성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속신을 내세워 마음에 들지않는 며느리감을 따돌리는 수단으로 삼았을 수도 있고, 혹은 며느리를 내쫓는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본다. 이것은 시집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방어기제 노릇을 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특히 가부장적제도가 강한 사회에서 보다 유리하게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③ 여자쪽을 중심으로 하면,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을 죽게하는(殺煞)운명을 가진 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여자의 일생과 결부지어 본다면 이러한 사상은 특히 남편과 관련되어 강조될 수 있다. 여자의 일생을 살펴 보면, 한 여자의 행불행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남편이다. 그러므로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는다면 하면, 그것은 바로 이러한 운명을 지닌 여자가 부인이었기 때문에 연유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

또는 상부살을 가진 여자, 必死女 등등의 민속사고가 형성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은 ②의 관념과 연합되어 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멍에와 굴레를 씌웠다고 생각된다. 우연이나 병 등으로 남편이 죽으면, 그 허물과 죄를 전부 여자에게 돌리게 되었으며, 결국은 여자가 내쫓김을 당하거나 구박받는 상황으로 몰락하게 되었다. 결혼하기 전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거절하기 위하여, 또는 아들과 연인사이를 떼어놓기 위하여 이것이 방어적 기제로 이용될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들의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민속신앙이었다고 생각된다.

① ② ③의 관념, 그 중에서도 특히 必死女에 대한 관념은 지장본풀이라는 신화가 형성시킨 일종의 속신(folk-belief)이다. 따라서 이것이 살아있는 문화력으로 잔존하여 여자들에게 굴레와 멍에를 씌우는 일은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이다.

B. 문학사적 의의

1. 민속신앙을 모태로 형성된 작품

지장본풀이가 이야기나 노래로 회자되면서 형성시킨 이상의 여러 가지 민속사고는, 단순히 신앙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몇몇 문학작품이 이상과 같은 민속신앙을 모태로하여 형성되었다. 남편을 죽게 만드는 여자, 남편을 잡아 먹는 여자, 결혼만 하면 상대방이 죽어가는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문학작품들은 바로 이러한 민속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소설과 가사작품 중 이런 유형을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소설

유명한 염정소설 「변강쇠전」은 이런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것이다. 옹녀는 상부살이 낀 여자이므로 그와 정을 맺는, 또는 결혼하는 상대방 남자는 모두가 죽어간다. 이것은 결국 여주인공 옹녀의 팔자가 남자를 죽게하는 팔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인데, 그러기에 그녀는 계속 새로운 남자를 찾아내야만 하는 비극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작품중 마지막으로 만난 변강쇠는 작품의 문면상으로는 장승의 동티 때문에 죽어가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다. 이면적으로

생각할 때 변강쇠가 죽은 원인은 옹녀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녀의 팔자는 남자를 죽게하는 것이다.

「변강쇠전」은, 운명적으로 상부살이 있는 여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녀의 생平的 부분들을 그려나간 것이다. 여기에서 주제처럼 강조된 것이 색과 이에대한 경계이며, 이런 여러가지를 소설적으로 허구화할 때 수용한 것이 방랑하는 당시의 유랑민들의 비극적삶의 양상이다. 결국 「변강쇠전」은, 지장본풀이가 형상화해낸 상부살이긴 운명을 가진 여자의 모습이 가장 극대화되어 나타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소설이 존재함으로써 必死女에 대한 사고는 현실사회내에서 보다 강조·강화되었다고 생각된다.

②가사

小白山大觀錄에 실려 있는 「화전가」에는 덴동어미라는 인물의 일생담이 서술되어 있다.³⁷⁾ 전체 총 808행 중 533행이 덴동어미의 일생담을 그리고 있는만큼, 이 가사는 덴동어미가 주인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덴동어미는 임이방의 딸로 성장하여 장이방의 아들에게 혼인했으나, 남편이 추천중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초혼에서 실패하고 상부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승발의 후취로 개가하나 또 병술년 괴질로 상부한다. 유리걸식하는 도중 황도령을 만나 개가하나, 그도 또한 산사태로 죽게 된다. 주막주인의 권유에 따라 다시 옛장수 조침지에게 개가하여 50세에 아들을 낳는다. 그러나 곧이어 다시또 상부를 한다. 남편이 옛을 고다가 죽고, 아들은 화상을 입고 병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친정으로 귀향하나 친정은 이미 폐가했다는 소식을 듣게된다. 결국 덴동어미라는 여자는 4번이나 남편의 죽음을 겪어야 하는 비운에 찬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必死女였음을 보여 준다.

여러번에 걸친 (상부-개가)의 작가적 의미는, 그때마다 따르는 개가 상대자들의 하층민적 삶의 전형성을 통해서 조선후기의 고립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층민의 운명적·현실적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³⁸⁾ 그렇다하더라도 이 작품은 덴동어미가 상부살을 지닌

³⁷⁾ 小白山大觀錄소재 「화전가」는 김문기(1983), 「서민가사연구」(대구, 형설출판사) 자료편에 수록되어 있다.

³⁸⁾ 이것은 고혜경(이화여대)이 1988. 4월 고전문학월례 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여자, 곧 만나는 남편을 모두 잡아먹는 여자, 죽게 만드는 여자라는 인식적 사고를 기저로 하여 이루어진 작품이므로 이 작품도 必死女の 實存이라는 민속신앙을 모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런류의 민속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작품은 찾아보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사고는 실제로 우리현실의 삶 속에 살아있고, 사회를 통제하면서, 사회속에서 아직도 기능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런 신앙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와같은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은 미래에도 얼마든지 더 나올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이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면, 상부할 때마다 상대방 인물을 새롭게 교체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그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첨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하여 사회계층에 대한문제, 사회상에 대한 고발 등등을 다방면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운명을 가진 여자를 주인공으로하는 기법은 앵글을 다각도로 맞출 수 있다는 기법상의 특징이 있으므로, 특별히 하나의 소설양식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변강쇠전」및 「화전가」도 결국 이러한 양식을 빌어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양식적인 기법의 특이함,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속되어온 민속신앙이 있기에, 이러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은 전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 지장본풀이의 서사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된 작품.

II 장에서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지장본풀이의 내용을 자세히 고찰한 것은, 민요 시집살이 노래의 내용 및 구조가 이것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둘의 비교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였다. 민요 ‘시집살이 노래’나 ‘삼촌집에’³⁹⁾ 및 ‘부부결합형 서사민요’의⁴⁰⁾

³⁹⁾ 조동일(1970), 「서사민요연구」(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p. 64 p. 68 p. 155 등 참조.

⁴⁰⁾ 고희경(1983), “서사민요의 일유형연구-부부결합형을 중심으로”(이화여대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p. 5. p. 8. p. 20 등 참조.

부부결합형 서사민요란 부부가 분리되었다가 죽음으로써 다시 결합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사민요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시집살이노래’, ‘삼촌집에’ 등의 민요가 거의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다 넓은 범위의

서사구조는 지장본풀이의 그것과 아주 비슷하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러한 유형의 민요가 지장본풀이를 모태로 하여 형성되었다고 본다. 즉 시집살이 유형의 민요는 희생제물을 드리던 의식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사람들에게 회자된 후, 이것을 바탕으로 약간의 내용변이가 가해지면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지장본풀이는 제의의 구술상관물인 신화치고는 내용이 비교적 짧다. 그러면서도 한 여인의 고난에 찬 일대기가 완벽하게 펼쳐진다. 그리고 음수율이 딱딱 들어맞는다. 길이가 짧다는 점에서는 기억하여 외우기 쉽고, 여인의 고난에 찬 일대기라는 점에서는 시집살이 속에서의 어려운 삶을 살아간 여인들의 삶의 모습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리고 음수율이 맞는것은 노래화되기 쉽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므로 이신화는 부녀자들 사이에서 내용의 특이함과 함께 자연스럽게 기억되어 자주 구송될 수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에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에 찬 삶의 모습을 여기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들 삶의 양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노래말(가사)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리하여 여러가지 유형의 시집살이 노래들이 파생된 것이다. 그러나 유구한 세월을 통해 일어난 이와같은 변이속에서도 그 근본적인 서사구조 및 내용은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집살이 유형의 노래에는 오늘날도 지장본풀이가 지녔던 서사구조와 내용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음에는 시집살이 유형의 노래가 가지는 일반적인 서사구조를 살펴보고, 이상의 논지를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여기에서는 민요 자체의 성격이나 문학적의의를 고찰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장본풀이라는 신화와 민요와의 상관성을 고찰하려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민요의 내용에 대해서는 되도록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집살이 노래에 대해서는 이왕의 연구업적이 있으므로⁴¹⁾ 여기에서는 그것을 참조하여 논지를 전개하기로 하겠다.

지장본풀이의 서사구조는 (기자정성에 의한 출생→조실(조)부모→외삼촌집에서의 서러운 생활→결혼→시가의 (조)부모 구물→남편 및 아들 죽음

정의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모두 통틀어 ‘시집살이 유형’으로 언급하기로 하겠다.

⁴¹⁾ 조동일(1970), 앞의 책
 서영숙(1982), “시집살이 노래의 존재양상과 작품세계”.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고혜경(1983), 앞의 글

→시누이의 박대와 가출→대사만나 중이 됨⁴²⁾→전새남굿벌임→새로의 환생)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시집살이 유형의 노래들은 소단락의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단락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통서사 단락은,

㉑ 삼촌집에서 고생하며 성장하다가 결혼한다.

㉒ (갓 결혼한 남편을 사별하거나 또는 시집식구들의 박대로 인하여) 시집살이를 할 수 없었다.

㉓ 입던 옷으로 장삼을 지어 입고 가출하여 중이 된다.

㉔ 이곳저곳으로 동냥다니다가 친정에 들르거나, 아니면 시집으로 가본다.

㉕ 남편과 결합한다.⁴³⁾

로 정리될 수 있다. ㉑는 간혹 없는 자료도 있으나 대부분의 자료에 나타나는 데, 특히 그 이전에 엄마 잃고 아버지 여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료도 있다. 이들은 바로 지장본풀이의 조실(조)부모와 삼촌집에서의 박대내용과 일치한다. ㉒에는 남편이 죽는 각편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 역시 신화의 내용과 맥이 닿아 있다. 신화에서는 시집의 조부모와 부모가 구물하는 것으로 나오나, 민요에서는 여자의 남편만 죽는 것이 많다. 이 노래들은 시집살이의 고된 상태를 나타내는데 중점이 있다. 그러므로 시집의 다른 식구들은 죽는 것으로 나올 수 없고 남편만 죽는 것으로 상징된 것이다. 시누이의 박대가 강조되어 있는 것도 신화의 내용과 상통하는 점이라 하겠다. ㉓는 시집살이 유형의 거의 모든 자료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자가 시집으로부터 이탈한 뒤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친정으로의 귀가, 일단 떠난 후 다른 곳으로의 개가, 자살... 등 여러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음에도

⁴²⁾ 전새남굿에 쓸 떡을 마련하기 위하여, 머리깎고 송낙을 쓰고, 가사를 입고 목탁을 들고, 호름춤치, 아강베포, 극보야자루를 메고 쌀을 시주받으러 다니는 것은 바로 지장이 중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⁴³⁾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것이 「한국구비문학 대계」8-6 경남 거창군편(2) pp. 502~5에 있는 [워천면 민요 3]이다. 이것은 제목이 '정환요'라 되어 있으나 내용을 보면 시집살이유형의 민요이다. 이노래는 '한살에 모친 잃고, 두살에 부친잃어, 삼촌집에서 서름속에서 크다가 열다섯에 시집가니 남편이 병들어 죽는다. 시집을 나와 중이 되려 금강산에 가다가 남편의 환생체로 생각되는 파랑새를 만나 후세상에서 살아 볼 것을 기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불구하고, 모든 각편이 전부 ‘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시집살이 노래가 바로 지장본풀이로부터 연유되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더더구나 중이되어 입는 장삼을 짓는 모양이 다양하게 묘사설명되는데, 이것은 지장의 굿준비하는 묘사의 반복법과 동일하다고 보여진다. ㉔는 친정으로 가는 내용과 시집으로 가보는 이야기로 크게 갈라진다. 이것은 민요에서 새롭게 창조·변이된 것이다. 시집에 가보니 시집식구가 모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시집에 대한 적대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애초에 신화가 가졌던 시집식구의 구물상황과도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⁴⁴⁾ ㉕남편과의 결합은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되는데, 새와 나무가 되어 결합하기를 희망하거나 남편의 묘에 핀 꽃속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비현실적인 사건들이므로, 남편과 함께 단출하게 동거동락하고 싶다는 여인들의 이상과 꿈이 투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편의 화신인 새를 만나, 남편과 저승부부가 된다는 결말도 역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새가 된다는 결말부분은 특히 신화적 내용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 전새남굿을 행하고 난 이후의 지장본풀이의 내용은 약간 애매성을 갖고 있다. 만약 여기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이것은 시집살이 유형의 노래에도 고정체계로 존재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장본풀이는 이러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는데, 이 신화가 가지는 끝 부분의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시집살이 노래로 하여금 보다 창조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도록 기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집살이 유형의 노래는 여주인공이 중이 된 다음의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여하튼 시집살이 유형의 노래가 가지는 구조적 공통성이 지장본풀

⁴⁴⁾ 서영숙(1982), 위의 글 p. 30에는 중노래의 마지막단락이 시집식구가 모두 죽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자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 버리던 집안이 망한다”는 생각의 표현이라 하고, 여자의 맺힌 서름을 풀려는 의지가 간접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했다. 주 47)을 참고하면, 이것은 민요 구연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정악을 시켜볼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중시해서 이해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해도 본고의 논지와 다른 것이 아니다. 신화의 근간에 따라 노래의 내용이 시집식구가 죽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요를 구연하는 집단이, 나름대로 이것을 이해하여 앞서와 같이 해석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내쫓긴 며느리를 편들고 내쫓은 시집식구를 미워하는 민중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의 그것과 상통하는 것은, 이것이 신화를 기반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시집살이유형의 노래는 줄거리를 진행시키는 서사진행은 지장본풀이와 근간을 같이하면서도, 부분 부분의 묘사는 향유집단 나름대로의 생활양상과 감정이 수용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집살이의 모습을 주로 노래화하는 것이니 만큼, 여기에는 시집살이의 어려움이나 고난, 박해 등의 이야기가 보다 많이 수용되어 묘사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시집살이유형의 노래란 곧, 시집살이노래의 향유층이 자신들의 생활감정이나 언어를 섞어 이 신화를 재조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리하여 이러한 노래들은 신화가 가졌던 애초의 기능, 즉 식구를 죽게 만든다는(必死·殺生)여자의 운명적 기능은 그 성격이 소멸되고, 대신 시집살이의 고달픔이나 비애가 강조되면서 재창조되어 장르적 변모가 일어난 채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본절에서는 지장본풀이라는 무속신화가 민요의 형성에 끼친 영향을 살펴 봄으로써, 신화와 민요와의 상관관계를 포착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신화와 민요와의 밀착관계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언급된 바 없다. 본고는 이러한 밀착관계의 한 예를 제시해 보고, 서사무가가 가지는 의의를 보다 확장해 보려고 시도한 것이다. 노래는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집살이유형의 노래같은 서사민요도 어떤 것을 근간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서사구조를 같이하는 두 장르의 일련의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둘 사이에 전혀 상관성이 없었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쪽이 제의에서 불러졌던 신화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화들은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는 것이 이미 정설로 굳어진 이상, 이러한 연관성을 아주 부정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 두 장르상의 넘나듦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V. 맺 음 말

본고는 제주도의 큰굿 및 작은굿에서 불리우고 있는 무속신화「지장본풀이」를 대상으로 그 성격과 제의적 기능을 고찰하고, 이 본풀이가

가지는 문화사적·문학사적 의의를 살펴 보고자 시도한 것이었다. 앞에서 검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기로 한다.

1. 지장이라는 여신의 근본내력을 설명하는 지장본풀이는 지극히 짧은 분량속에서도 전형적인 영웅의 일생담에 해당하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는 본신화가 신화적원형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신화의 주인공 지장여신은 대상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능(必死, 殺生)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기능으로 보건대, 이 신화는 큰굿 중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한 의식에서 불러졌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지장여신이 백정들의 수호조상신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신화가 백정들의 生業의 번창을 비는 ‘거무영청대전상’이라는 굿에서 읊어지는 것도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이 신화는 喪夫煞을 가진 여자, 또는 必死女가 있다는 민속신앙을 형성시킴으로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어떤 여자들에게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굴레와 멍에를 씌웠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않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지 않기 위한 핑계나 구실로 이용되는 방어적 기제 노릇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결국 문학작품에도 반영되어 고대소설 「변강쇠전」의 웅녀나 가사작품 「화전가」의 여주인공 덴동어미 등을 탄생시켰다. 또한 지장본풀이의 서사구조 및 내용은 서사민요 「시집살이 유형의 노래」를 배태시키는 모태로서 작용하기도 했다.

참 고 문 헌

〈자 료〉

- 김영돈, 현용준조사(1965), 「제주도 무당굿놀이」 (중요무형문화재지정자료)
 진성기(1968), 「남국의 무가」 (제주, 제주민속문화연구소)
 최정여·서대석(1974), 「동해안무가」 (대구, 형설출판사)
 현용준(1980),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서울, 신구문화사)
 「한국구비문학대계」 8-6 경남거창군편(2) (한국정신문화연구원간)

〈논 저〉

- 고혜경(1983), “서사민요의 일유형연구”-부부결합형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김석하(1973), 「한국문학의 낙원사상연구」
- 서대석(1980), 「한국무가의 연구」 (서울, 문학사상사)
- 서영숙(1982), “시집살이 노래의 존재양상과 작품세계”,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왕 빈(1980), 「신화학입문」 (서울, 금란출판사)
- 유동식(1975),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출판부)
- 조동일(1970), 「서사민요연구」 (대구, 계명대출판부)
- 佐和隆研編, 「佛像圖典」, (일본, 吉川弘文館)
- J. G. Frazer, 「황금의가지」, 김상일(역), (서울, 을유문화사) 1976
- Thomas A. Sebeok (1958), 「Myth a Symposium」, Indiana University Press.